2017. 6. 12. (월) 언론보도

국민일보

2017년 06월 12일 (월)
13면 사회

'DMZ 트레일 러닝' 대회, 9월 1~3일 열린다

DMZ 일원 100㎞ 달리기
입문자·일반인 위한 코스도

경기도 파주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 일원에서 10~11일 열린 'DMZ 트레일 러닝 캠프' 참가자들이 천혜의 생태보고인 DMZ의 자연을 만끽하며 달리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9월 1~3일 경기북부 DMZ 일원 총 100㎞를 달리는 '2017 DMZ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은 산길이나 숲 등을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마라톤보다 더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도는 김포와 파주, 연천 등 DMZ 일원에서 트레일 러닝에 적합한 코스를 개발해 DMZ를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시키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전문선수를 위한 100㎞ 코스와 50㎞ 코스를 비롯해 트레일 러닝 입문자 및 일반인을 위한 코스를 마련,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꾸며진다. 참가신청은 공식 홈페이지(dmztrailrun.com)를 통해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과 11일 파주 임진각과 캠프 그리브스 일원에서 트레일 러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DMZ 트레일 러닝 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서 급부상 중인 트레일 러닝의 인기를 반영하듯 1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행사를 진행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5.2 X 12.8 cm

세계일보
2017년 06월 12일 (월)
13B면 전국

"DMZ 생태보전"… 세계 석학들 임진각 모인다

국제포럼 내일부터 3일간 열려
접경지 보전 협력방안 등 모색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모인다.

경기도는 오는 13~15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와 함께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는 물, 공기 등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을 뜻하는 말이다. 기후조절, 대기정화, 서식처 제공, 원자재 제공, 생태관광 등 4가지 분야 22가지 서비스가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ESP 양자 간 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개최되는 첫 국제행사다.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 모델 창출, 국제적 시각에서의 접경지 보전을 위한 의제 정립, 남북협력 대비 국내외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ESP 루돌프 드 흐룻 의장, 일본 UN대학교 사이토 오사무 교수, 중국과학원 리 펑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에는 관계기관 간 사업·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북아 접경지 관리를 위한 잠재 협력방안을 토론하며 협력방안 제안서를 협의한다. 제3차 ESP아시아사무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외 집행위원과 아시아사무소 운영위원이 만나 ESP아시아사무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와 12월 중국 선전시에서 개최되는 ESP세계총회 기간 아시아포럼 계획 등을 논의한다.

둘째날 포럼은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과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에 대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사전 신청을 받는 도민을 대상으로 파주와 연천지역 민통선 일원의 현장답사가 진행된다.

17.2 X 10.4 cm

서울경제
2017년 06월 12일 (월)
33면 전국

경기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 개최

비무장지대(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 모인다. 경기도는 오는 13~15일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와 함께 파주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ESP 양자간 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루돌프 드 흐룻 ESP 의장, 사이토 오사무 일본 UN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관리'과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 세션으로 진행된다. /윤종열기자

7.0 X 8.0 cm

기호일보

2017년 06월 12일 (월)
03A면 종합

DMZ 생태계서비스 동북아 협력방안 모색

국제포럼 내일 개막

경기도는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와 함께 13~15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도와 ESP가 체결한 양자 간 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약의 일환으로 ESP 루돌프 드 흐룻 의장, 일본 UN대학교 사이토 오사무 교수, 중국과학원 리 펑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13일은 관계 기관 간 사업 및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북아 접경지 관리를 위한 잠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제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14일에는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관리'를 주제로 한 세션Ⅰ,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에 대한 세션Ⅱ 등으로 진행된다.

세션Ⅰ에서는 ESP 의장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국제 동향', 리 펑 책임연구원의 '동북아 접경지 자연자원 관리 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Ⅱ에서는 사이토 오사무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가 각각 '접경 지역의 생태 연결 방안 전략과 사례',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도민이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연천 선사유적지와 재인폭포 등 파주와 연천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일원을 답사한다.

김동근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포럼이 DMZ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첫 번째 논의의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1 X 7.5 cm

경인일보

2017년 06월 12일 (월)
02면 종합

DMZ 생태계보전 세계석학에 듣는다

임진각서 13~15일 국제포럼
경기도-ESP MOU후 첫행사
국제기구 정보공유 강화 기대

세계적 석학들이 임진각에 모여 DMZ 생태계 보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 아시아사무소와 함께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경기도와 ESP 양자 간 DMZ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개최되는 첫 국제행사다. 루돌프 드 흐룻 ESP 의장과 사이토 오사무 일본 UN대학교 교수, 리 펑 중국과학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 등 100여 명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13일에는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접경지 관리를 위한 잠재 협력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둘째 날에는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 관리',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 등 두 개의 세션으로 각각 회의가 진행된다. 루돌프 드 흐룻 의장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국제 동향', 리 펑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접경지 자연자원 관리 사례', 사이토 오사무 교수의 '접경지역의 생태연결방안 전략과 사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의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반구정 일원, 전곡리 선사유적지, 재인폭포, 고문리 협곡 등 파주·연천 민통선 일대 현장답사가 예정돼 있다.

도는 이번 포럼이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 모델 창출뿐 아니라, 남북협력에 대비한 국내외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SP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협력 추진 기관 간 정보 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태의 보고인 DMZ의 중요성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적 환경포럼으로 자리매김해 경기도가 협력채널 구축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태·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 X 10.4 cm

경기신문

2017년 06월 12일 (월)
02면 종합

생태계 보고 'DMZ 보전' 세계석학들 집결

道, 13일부터 임진각서 국제포럼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 참석
동북아시아 접경지 관리 등 논의

도 "지역발전 모델 창출 기대"

DMZ 생태계 보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들이 파주 임진각에 모인다.

경기도는 오는 13~15일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와 함께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포럼에는 루돌프 드 흐룻 ESP 의장, 사이토 오사무 일본 UN대학교 교수, 리펑 중국과학원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13일에는 물과 공기 등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을 의미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접경지 관리를 위한 잠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각각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 관리',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진행한다.

세션Ⅰ에서는 ESP 의장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국제 동향', 리펑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접경지 자연자원 관리 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세션Ⅱ에서는 사이토 오사무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택구 박사가 각각 '접경지역의 생태연결방안 전략과 사례',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마지막 날은 파주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연천 선사유적지와 재인폭포 등 파주와 연천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를 답사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지역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남북협력에 대비해 국내·외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DMZ홈페이지(http://dmz.gg.go.kr)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연우기자 27yw@

23.8 X 9.1 cm

중부일보
2017년 06월 12일 (월)
01B면 종합

임진각 DMZ관광센터서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

경기도는 오는 13~15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국제환경 전문기구 ESP아시아사무소와 함께 '2017 DMZ 생태계서비스 국제포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포럼에는 루돌프 드 흐룻 ESP 의장, 사이토 오사무 일본 UN대학교 교수, 리펑 중국과학원 책임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첫날인 13일에는 물과 공기 등 '생태계로부터 인간이 얻는 혜택'을 의미하는 생태계서비스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접경지 관리를 위한 잠재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각각 '생태계서비스 정책 및 자연자본 관리', '생태적 연결 및 접경지 협력'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진행한다.

세션 I 에서는 ESP 의장의 '생태계서비스 정책 국제 동향', 리펑 책임연구원의 '동북아접경지 자연자원 관리 사례' 주제발표에 이어 전체토론이 진행된다.

세션 II에서는 사이토 오사무 교수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태구 박사가 각각 '접경지역의 생태연결방안 전략과 사례',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마지막 날은 파주의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 연천 선사유적지와 재인폭포 등 파주와 연천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를 답사한다.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DMZ홈페이지(dmz.gg.go.kr)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성기자

5.5 X 19.7 cm